

# 과총 2000년도 새해사업 확정

2월 29일 제35회 정기총회에서, 감사 金榮鎭·林瑢圭씨 선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월 29일 제35회 정기총회를 열고, 200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는 한편 임기 2년의 감사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9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금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을 ▲과학기술정책 개발 ▲학회 학술활동 육성 및 정보화 추진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고급두뇌 활용 ▲과학기술 대중화 및 풍토조성 ▲남북 및 세계 한민족과학기술교류 추진 ▲회원단체 협력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개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내빈과 대의원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과학기술인의 신조」 낭독을 시작으로 김병수 과총회장의 개회사, 서정욱 과기부장관의 축사 그리고 유공자 시상에 이어 이결삼 사무총장의 회무보고를 거쳐 의안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 과학기술인 우대풍토 조성

이날 김병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천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이랄 수 있는 디지털과 지식의 결합은 온 세계의 법칙을 뒤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자기혁신과 사고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과총에서는 올해에도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당

국에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학회학술활동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과학기술인 우대풍토의 조성과 과학기술계의 대변자적 역할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혁신 적극추진을

한편 서정욱 과기부장관은 축사에서 “과총은 1966년 설립된 이래 시대상황이 바뀔때마다 힘과 뜻을 모아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치하하고 “향후 지식기반사회에서 국운개척을 위한 핵심과제는 과학기술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수립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비롯한 중장기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아울러 종합조정기능의 지속적 강화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체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인들도 과총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굳게 단합하여 스스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총력체제를 갖추어 주실것”도 당부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감사(2인/임기2년)는 다음과 같다.

- 金榮鎭(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林瑢圭(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부설 동위원소교육연구원 원장) 